

여 적극적이고 중앙통제적인 행정기능의 수행을 완수하여야 한다.

④효율적인 환경오염 방지기능을 발휘하기 위하여는 환경관리 능력과 전문 인력이 풍부한 행정관서로 이관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환경관리인의 자질도 향상될 수 있다.

### 5. 맺는 말

뜻 있는 환경인은 환경청의 환경보호부 승격

과 환경관리인의 사법권 부여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새로이 환경정책기본법이 입안 과정에 있는 차제에 환경행정의 일원화가 이루어 지기를 기대해본다. (G회사 S관리인)

- 참고자료 : 조선일보 '87년 1월 8일자
- 환경보전법 시행령 49조
- 주간생활환경 '87년 3월 23일자
- 동아일보 '87년 9월 16일자
- 환경보전 10월 30일호

# 環境問題의 再認識

신 명 선 <건국대학교 환경공학과 3년>

人間은 누구나 幸福을 향유할 權利와 쾌적한 環境을 가질 權利를 가지고 있으며 物質的 慾求를 충족시키고 知的, 道德的 그리고 社會的 및 精神的 成長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環境의 창조자인 동시에 環境의 형성자이다. 人間 環境의 改善과 向上은 세계 각국들의 끊임없는 노력을 통하여 현재의 수준까지 도달했으며, 이는 인간 복지의 棼景인 同時에 全世界人들의 業원이며 모든 國家의 義務이고 책임이다.

오늘날 눈부신 과학기술의 발전과 無數한 工業化에 기인한 나머지 棼목할만한 物質的 成長을 해왔고, 우리 人間은 이에 부응하여 많은 文化 生活을 누리어 왔던 것은 否認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 생활 주변의 環境汚染에 대한 심각성이 公業화 of 的 가장 큰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기대하지도 않던 생활 環境의 汚染이라는 副產物과 아울러 현대인은 公害病이라는 치료조차도 어려운 다양한

형태의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는 이러한 環境 汚染을 결코 묵시할 수 없으며, 방관하거나 회피해서는 안되는, 우리 人間 生存에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성장 일변도의 公業化와 산업化로 環境오염은 더욱 심화되고 있고, 止揚되어야 할 요소들이 많은 우리 산업구조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이제는 國民 福祉에 중점을 두어 公害를 유발하는 산업들은 억제해야 할 것이다.

環境 汚染과 破壞에 의해 生態系의 平衡이 깨어지면 우리 인간이 直接·間接의 影響에 의해 상당한 被害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次元에서는 상당히 위험하다. 生命體는 環境變化가 생기면 變化된 環境에 적응하지 못하면 淘胎되어 버리거나 畸形的 成長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더욱 觀心을 가져야 한다. 生態系 保存은 우리의 하나뿐인 地球를 保存 하는 길임은 물론이고 우리 人類가 保護받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無償으로만 評價되고 있는 물과 空氣에 汚染을 발생케하여 더 이상의 使用 價値를 상실하게 한다면 그것은 곧 地球의 滅亡을 意味한다.

모든 企業과 産業體는 여태껏 無償으로만 공급된 물, 空氣, 自然環境에 經濟設備 投資를 해야 한다. 물과 空氣는 공짜이지만 모든 動·植物과 人間과 하찮은 微生物까지도 없어서는 안될 생존에 必須的이고 原礎的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保護되지 않으면 核의 恐怖보다 더 위험하고 무서운 災殃을 가져다 줄 것이다.

특히, 企業은 環境 公害問題 解結의 意味에서 積極的인 參與를 해야 한다. 또한, 물·공기는 공짜라는 認識에서 탈바꿈해야 한다. 물·空氣를 商品價値에 포함하지 않고 있고, 無料에 가깝게 使用되기 때문에 낭비되기 쉽고 汚染이 되어도 保償하려는 意志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 人間은 물과 공기가 없으면 전혀 살 수 없기 때문에 잘못된 企業 倫理는 시정되어야 하고 人間 個個人도 물과 공기 등의 自然環境에 대한 새로운 觀心과 保護에 努力을 해야 한다.

일부에서는 공해 현상에 대한 무감각으로 공해 방지에 신경을 많이 쓰면 經濟成長이 느려지지 않느냐는 小數의 反對 意見이 있는데, 국민 복지의 차원에서 이 環境 公害問題가 다루어 져야 하며, 地球 保存의 意味에서 經濟成長이 약간 둔화되는 것은 감수해야 할 것이다. 물론 經濟成長과 環境의 保存 및 保護가 同時에 이루어진다면 더할 나위 없는 錦上添花인 것이지만, 이것은 現在까지 이루어진 産業化過程을 본다면 不可能하다고 판단 되어 진다.

그러나, 이런 현상은 公害와 環境保護를 念頭에 두지 않은 過渡한 經濟政策이었기 때문이다. 앞으로 公害防止와 環境保存을 加味한 經濟政策과 工業化와 研究者의 研究가 이루어진다면 전혀 不可能한 것도 아니다. 未來를 保障 받을 수 있는 地球가 될려면 이와 같은 政策的 研究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環境保護는 어느 국가나 개인 만이 참가해서는 안되며,

全世界가 共同으로 參與하여야만이 目的하는 바의 成果를 이룩할 수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계의 環境 保護協會나 단체를 중심으로 各國의 政府와 學界, 財界 등의 相互 긴밀한 協助 아래 環境 保護를 위한 國民에 대한 積極的 弘報와 公害防止를 위한 實質的인 公害防止 運動의 先頭에 나서야 한다.

최근 유럽의 各國들은 大氣汚染과 酸性雨에 의해 森林이 枯死하고 있고 오래 전부터 美國과 캐나다 國境 地帶의 酸性雨 是非問題는 더욱 이러한 國際的 協力을 必要로 한다는 것을 證明해 주고 있다. 環境保護 및 公害防止는 어느 國家이건 自國의 利益의 여부에 의한 行動이 아니라, 實利를 排除한 人類愛의 側面에서 人間의 幸福 追求와 福祉, 人類 共存과 人類 共榮의 次元에서 環境保護는 優先이어야 한다. 地球는 너와 나의 財産이 아니라 우리 人類의 先조와 후손의 共同 財産이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公害가 왜 일어났는지 그 防止 對策이 무엇인지를 알아 보았다. 公害는 어느 個人이나 責任이 아니라 이 社會의 共同의 責任이다. 그리고 公害防止는 어느 개인이나 국가 혼자서는 不可能하고 構成員 全体가 自發的이고 積極的인 參與에 의해서만 可能한 問題이다.

또한 환경은 어떠한 經濟的 損失이 뒤따르더라도 保護·保存되어야 하며, 더 이상의 環境破壞는 地球 破壞의 첨경임을 明心하지 않으면 안된다. 環境은 構成員의 保護者인 同時에 絶對者이다. 快適한 地球의 未來를 保障받기 위해서는, 우리 後孫에 아름다운 地球의 모습 그대로 물려 주려면 우리는 地球의 環境 保護를 위해 共同으로 對處해 나가야 하며 어떠한 理由에서도 環境 保護가 疎外되어서는 안된다.

모든 學問에 優先이어야 하고 모든 政策에 대해 優先이어야 한다. 環境은 우리의 保護者임을 다시 한번 明心해야 할 것이다.

너와 나의 地球가 아닌 우리의 地球이기 때문이다. ◀